



운상좌의 선원총림을 가다

1000년 전 그곳과 오늘 ㉘

법구(法具)의 종류-(1) 대종(大鐘)

선(禪)은 언어 문자로는 미치지 못하는 진리의 세계를 추구한다. 그래서 선 수행자들은 무언 속에서 선의 극처(極處)를 찾아 나선다.

선원총림은 그 규모가 대단히 넓고 크다. 수행하는 남자와, 당우도 많다. 그러나 일체 무언 속에 진행된다. 말이나 언어문자는 선과 조우를 방해하기 때문이다. 의사소통 방법은 언어가 아니라, 종(鐘)과 북, 목어와 운판 등 기물이다. 모든 대종은 그 소리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움직인다.

총림에선 설법·예불·법회 등 큰 의식이나 행사가 있을 때 종(鐘)과 북(鼓)을 친다. 이어 운판(雲板)과 목어(木魚) 등을 치는데, 이 기물들을 총칭하여 '법구(法具)' 또는 '불구(佛具)'라고 한다. '법법을 수행하고 불사(佛事)를 행하는데 필요한 도구'라는 뜻이다. 이 4가지를 가장 중요한 법구라고 하여 '사물(四物)'이라고도 한다. 그밖에 고원(庫院, 주방)이나 재당(齋堂, 식당)에 매달아 놓고 공양시간을 알릴 때 치는 방(梆)과, 법회나 행사 때 개식(開式)을 알리는 백주(白椎, 白鐘, 白槌, 백퇴라고도 함), 그리고 예불과 전도재 등 의식을 행할 때 사용하는 경(磬)과 요발(鑪鉢) 등이 있다.

종(鐘). 새벽녘에 종과 북이 울리면 대종들은 모두 일어나서 가사를 입고 불전(佛殿, 대웅전)으로 모인다. 예불을 알리는 종(鐘)이기 때문이다. 아침 공양 후 종소리가 울리면 대종들은 모두 법당으로 집결한다. 방당의 설법이 있음을 알리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곧이어 승당의 종이 울리면 모든 대종들은 선당으로 모인다. 좌선(坐禪) 시간을 알리는 종이기 때문이다.

선원총림에서 사용하는 종으로는 대종(大鐘)과 전종(殿鐘), 당종(堂鐘)이 있고, 그밖에 용도에 따라 환종(喚鐘), 혼종(昏鐘) 등이 있다. 대종(大鐘)은 종 가운데 가장 큰 종으로서 산문 좌측의 종루(鐘樓)에 걸려 둔다. 전종과 당종은 모두 소종(小鐘)으로서 불전과 승당에 거는 종이다.

대종(大鐘)을 흔히 '법종(梵鐘)'이라고 한다. '법(梵)'이란, '법행(梵行, 청정한 행위)'이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청정함'을 뜻한다. 곧 '청정한 사원(梵刹)의 종(鐘)'이라는 뜻으로, 이 청정한 법음(法音)을 듣고 오염된 마음을 정화하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대종은 주로 총림에서 모든 대종들을 집결시킬 때, 조석 예불과 기상, 취침, 법회, 상량법어 등 큰 행사가 있을 때 치는 종이다. 모두 108번 친다고 하여 '백팔종'이라고도 하는데, 곧 108번뇌를 상징한다. 총림의 구성원으로서 대종 소리를 듣고 참가하지 않는다면 그는 일차적으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합당한 이유가 없을 때, 또는 철회하지 않을 때는 추방되기도 한다.

〈적수백장청규〉 '성절(聖節)' 장에는 "대종과 승당 앞의 종[堂鐘]이 울리면 모든 대종들은 불전(佛殿, 대웅전)으로 와서 부처님을 향하여 배례한다. 주지는 곧 부처님께 차[茶]를 올린다. (鳴大鐘及僧堂前鐘, 集衆列殿上向佛排立, 住持上茶湯)"

또 '법기(法器)' 장에서는 대종을 칠 때와 그 치는

방법에 대하여, "총림의 호령(號令)은 대종으로부터 시작된다. 새벽에 처서 장야(長夜)를 깨트리고 수면에서 깨어나게 한다. 저녁에 처서 어둠을 일깨우고 몽매함을 사라지게 한다. 방망이(공이)를 당길 때는 천천히 당겨야 하며, 소리가 길게 울리도록 해야 한다. 종을 칠 때는 세 차례에 걸쳐서 치는데 각각 36번을 쳐서 총 108번을 친다(大鐘(…) 凡三遍, 各三十六下, 總一百八下)"라고 하여, 모두 108번 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장로종색의 〈선원청규〉에도 "대종을 칠 때는 느리게 18번 치고, 빠르게 18번 친다. 이렇게 하여 모두 각각 세 번 씩 친다. 합하여 108번 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종은 물론 신호용이지만, 그 의미는 "이 종소리를 듣고 번뇌를 끊으라(聞鐘聲, 煩惱斷)"는 개송(=鐘頌)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각하여 스스로 번뇌를 단절시키라는 것이다. 번뇌를 끊지 않고는 진리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종을 치는 방법과 횟수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총림(해인사의 해인총림, 통도사의 영축총림, 송광사의 조계총림)에서는, 〈선원청규〉·〈적수백장청규〉 등 청규의 규정과 달리 새벽에는 28번, 저녁에는 33번을 치고 있다. 모든 책과 사이트에도 그렇게 서술되어 있는데, "아침에 28번을 치는 것은 삼계(三界, 육계 세계 무색계) 28천까지 종소리가 울려 퍼지기를 기원하는 뜻에서, 그리고 저녁에 33번을 치는 것은 도리천의 33천까지 종소리가 울려 퍼지기를 기원하는 뜻"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총림과 선원에서 선을 표방하고 있으면서도 전통적인 청규의 규정을 무시하고 달리 치고 있는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경전적·문헌적 근거가 매우 희박하다.

필자의 판단으로는 조선시대에는 한양 등 큰 도시에서 백성들에게 야간에 통금을 알리기 위하여 종을 쳤는데, 그 횟수를 답습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서도 문제점은 아침과 저녁의 타종 횟수가 바뀌어져 있다는 것이다. 즉 한양에서는 보신각에, 각 지방에서는 관아(官衙) 앞에 종루(鐘樓)를 세워 서 조석으로 통금 시간에 종을 쳤는데, 새벽에는 4시, 저녁에는 10시에 쳤다. 새벽 4시에 통금이 해제

새벽4시 타종 28번은 일월성신에

저녁10시 타종 33번은 33천신에

됨을 알리는 오경종(五更鐘)을 '파루(罷漏)'라고 하여 33번을 쳤고, 저녁 10시에 통금이 시작됨을 알리는 이경종(二更鐘)을 '인정(人定)'이라고 하여 28번 쳤는데, 이 종소리와 함께 4대문의 문지기들은 정문을 개폐했다. 저녁에 28번을 친 것은 곧 잠자리에 들게 되므로 하늘의 일월성신(日月星辰)인 이십팔수(二十八宿, 28별자리)에게 밤새 안면을 기원한 것이고, 새벽에 33번을 친 것은 불교의 수호신인 33천계 낮 동안의 무사평안을 기원한 것이었다.

우리나라 총림에서 조석으로 시행하고 있는 타종

총림의 호령은 대종으로부터 시작된다



부여 무량사에서 스님이 저녁 예불을 알리는 종을 치고 있다.

횟수에 대하여, 60년대 초부터 줄곧 해인사에 주석했으며, 종강과 강주 그리고 해인총림의 울주 및 울원장을 지낸 바 있는 종진 스님께서는 "해인사도 아침에 28번, 저녁에 33번을 쳤는데, 1967년 해인총림을 세울 무렵 당시 율사이신 자운(慈雲) 큰스님께서 타종 횟수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셨고, 이에 고증을 거쳐 108번을 쳤었다"는 것이다. "이후 1970년대 중반까지도 그대로 지켜왔는데(108번), 그 후 어찌된 일인지 바뀌어졌는데, 무슨 근거로 그렇게 치는지(28, 33번)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이웃 나라인 중국이나 일본의 총림에서는 여전히 청규의 규정대로 108번을 치고 있다. 특히 일본 조동종 영평사나 총지사는 모두 천년 전 송대 총림의 전통들을 가장 잘 유지해 오고 있는 곳이다.

대종을 치고 관리하는 소임을 종두(鐘頭)라고 한다. 종두가 직접 치는 때도 있지만, 총림에서는 대체로 종두행자로 하여금 치게 한다.

새벽과 저녁의 종소리는 산사의 정적(靜寂)을 깨지만, 한편으로는 더욱 정적을 자아낸다. 그리고 간간히 들려오는 열불소리는 듣는 이로 하여금 다른 세계로 인도한다. 종(鐘)은 시간을 알려 주는 도구이지만 그 의미는 각성, 자각 등을 의미한다. 곧 무지와 어리석음, 몽매함으로부터 깨어나서 해탈하라는 의미이다. 하나의 종소리에도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보살정신을 엿볼 수 있다.

전종(殿鐘)은 불전(대웅전)에 거는 종으로서 사람 앉은 키 정도의 작은 종(小鐘)이다. 먼저 종두가 대종과 북을 치면 모든 대종들은 불전으로 올라와서 각각 자기 자리에 선다. 이어 주지(방장)가 올라와서 향을 사르면 예불이 시작되는데 이때 치는 종이 전종이다. 실제 예불이 시작됨을 알리는 종으로 지전(知殿)이 치고 모두 일곱 번 친다. 전종(불전의 종) 소리가 울리면 당종(堂鐘, 승당의 종)도 따라 친다.

〈선원청규〉... 타종 108번 규정

국내 총림·선원 횟수 근거 희박

당종(堂鐘)은 승당 안에 거는 종으로서 크기는 전종과 같다. 수행승들이 승당으로 모을 때, 주지가 승당으로 들어왔음을 알릴 때는 일곱 번 친다. 그리고 '방참종(放參鐘)'이라고 하여 아침 법문인 조참과 저녁 법문인 만참(晩參)을 하지 않을 때도 당종을 치고, 조하루 보름에 순당(巡堂)할 때, 차상(茶床) 등을 물릴 때도 이 종을 치는데, 이때는 3번을 친다. 혼종(昏鐘)은 저녁 무렵 하루해가 질 때 치는 종이요, 환종(喚鐘)은 일식, 독참 때에 독참자가 와 있음을 알리는 종이다.

근래에 새해 첫날 자정에 보신각 종을 '제야의 종'이라는 이름으로 타종하기 시작한 것은 1953년이지만, 그 시작은 일제치하인 1929년부터이다. 경성방광궁(1926년 설립)에서, 1929년 1월 1일 새해맞이 이벤트로 남산 기슭에 있던 일본 절인 본원사의 법종을 스튜디오로 옮겨 와 10초에 한 번씩 치면서 중계한 것이 그 시작이다. 이후 일제 강점기 내내 해마다 제야의 종소리로 조선의 종과 이른바 '내지(內地, 일본)'의 종소리를 번갈아 가며 생중계하는 행사가 이루어졌다. 봉덕사 종(예말례종), 봉은사 종(鐘)도 동원되었다. '제야(除夜)란 '선달 그믐날' '한해의 마지막 날 밤'을 뜻한다. '제(除)자는 '바쁘다'는 뜻이다.

〈알립니다〉

제825호 연재 '스님, 발우 씻은 물도 시주물입니다'에서 "공양을 다른 말로는 '행익(行益)'이라고 한다. 그리고 '공양할 때'를 '행익차(行益次)'라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행익(行益)이란 공양을 나누어 주는 것 즉, 밥을 나누어 주는 것을 가리킵니다'로 정정합니다.

윤화홍 도서출판 민족사 대표 hanghwa9@hotmail.net



백초귀장술

조상을 제대로 뽑으면 천도재 권하기가 쉽습니다

찾아온 시간으로 왜 왔는지, 무슨 귀신 장난인지 상대방 마음 꿰뚫어 보는 법
집안동토탈 알아내는 법
산소탈 원인 알아내는 법

BESTSELLER
진입!

귀신뽑는 래정비법으로 복잡하지 않고 간단히 알 수 있는 비법공개!
60갑자 일진별로 한눈에 속속 알 수 있게 초사를 확실하게 설명!

著者 白超 백초스님 ① 신국판/양장본/567쪽/정가 120,000원 ② 신국판/양장본/712쪽/정가 120,000원

白超律曆學堂
전화 10213667-4446, 010-3813-4443

임금계좌 농협 023-02-500940
예금주: 임현주

LEADER





미얀마 양곤 신도시 나인따야에 위치한 5만평 대지
코리아 기술 종합 대학교



2010년 12월 12일 신축 공사가 시작 되었습니다.

학교 관리자는 미얀마 종교성 장관이 자동으로 선임되고 국제불교 지도자 협회에서 운영하기로 협의 하였습니다. 후진국 빈곤 청소년들에게 살아가는 삶 자체를 바꾸어 주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중생의 지팡이가 되시고자 하시는 참다운 불자, 숨은 봉사자를 찾습니다.

초빙 안내

총장, 명예 교수 겸 운영이사

자격 : 부처님의 제자 (비구 비구니 우바이 우부새) 1년에 1주일이상 학교에 머물며 학교 건축 및 운영 전반에 직접 참여할 모든 종단 및 남녀불문하고 스님 및 재가자를 모시고자 하며, 총장 선임자는 교육계 정년 퇴임자 중 헌신 봉사할 불자를 찾습니다.

종교법인 국제불교 지도자 협회 외교법인 한국미얀마친선교류협회
MAHA SADDHAMMA JOTIKAD HAJA SANGGALAJA

이사장 목탁 혜은 합장 대표 전화 02)733-5665, 011-229-6061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